

# REBT 진로 집단상담이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여숙현, 김명식  
전주대학교

## The Effects of REBT Career Group Counseling on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the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in Thirties

Suk-Hyun Yeo, Myung-Shig Kim  
Jeonju University

요 약 최근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와 사회참여에 대한 문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에게 REBT 이론을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 및 실시하여,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J시 소재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대 경력단절 기혼여성 45명이었다. 본 연구에 지원한 45명을 상담집단(REBT 집단), 통제집단1(일반부모 교육 집단)과 통제집단2(직업상담사 교육집단) 3집단에 각 15명씩 무선배정하고 사전-사후 비교를 실시했다. 측정도구는 자기효능감 척도와 진로태도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REBT 진로 집단상담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 사회효능감, 자기효능감(전체) 등이 사후에 증진되었다. 또한 REBT 진로 집단상담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태도성숙도의 현실성, 준비성, 결정성, 진로성숙도(전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REBT 진로 집단상담이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의 진로와 경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REBT, 경력단절, 기혼여성, 자기효능감, 진로태도 성숙, 진로집단상담

**Abstract** Recently problems and issu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were emerging as major social agenda in modern general and female society. This study modified and restructured REBT career group counseling and intended to testify the effects of REB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areer discontinued married women in thirties. The subjects were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in thirties living in J city, who ha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their children and applied to our study with 3 groups. 45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REBT Group), control group1(education group for vocational counselor) and control group2(general parental education group) by the number of 15. To assess effects of 3 groups, pre-test and post-test were carried out.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of REBT group showed more self-efficacy, social efficacy and total self-efficacy scores than them of 2 control groups. And they had tendency to have more sense of reality, preparedness and total career attitude maturity scores. It seems that REBT career counseling program changed their irrational beliefs into rational beliefs about course and career, increasing their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meaning, limitation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 REBT, Career Interruption, Married Woman,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Group Counseling

Received 26 July 2016, Revised 31 August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Corresponding Author: Myung-Shig Kim(Jeonju University)  
Email: klb2000@jj.ac.kr

ISSN :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최근에 들어와 국내에서도 선진 외국과 같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매우 강조되고 있고,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1].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여성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는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배제되는 특정한 연령대와 특성을 지닌 집단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현재 국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57.0%로서 OECD 평균62.8%, 일본 66.0%, 미국 67.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30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2].

원래 Ellis의 인지행동 치료기법(Rational Emotive Belief Therapy; REBT)이란, 어떤 사실(A: activating event-선행사건)에 접하여 경험하게 되는 정서와 행동(C: consequence-결과)은 사실 자체에 의해서보다는, 그 사실에 대해 어떠한 생각(B: belief - 사고 또는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REBT에서는 내담자의 정서적 혼란과 관계되는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논박하여 이를 최소화하거나 합리적인 신념체계로 바꾸도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며 융통성 있는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3].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4,5]. 특히 김희수(2001)는 대학생을 REBT를 적용한 진로 집단 상담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진로태도성숙,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상승 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했다[6]. 또한 백은정(2014)은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이 낮다고 보고했고[7],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밀접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8]. 이러한 REBT 진로 집단

상담 관련 선행연구들을 개관할 때, REBT 진로 집단 상담이 진로와 경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가 모두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가정할 수 있다.

30대 기혼여성이 비교적 젊고 교육도 잘 받아 경제시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면서도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결혼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정보부족, 가사 등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경력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나 비합리적 신념을 많이 갖게 되고, 그 결과 취업에 있어서의 현실감이 저하되고, 경제와 취업활동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기효능감이나 진로태도 성숙도가 저하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밟고 있는 것 같다[9].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에 처해있는 30대 기혼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을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탐색 및 확인해 보고, 향후 국내의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활동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자기효능감과 30대 여성의 진로 및 경력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자신이 특정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이며, 최종 결과(final outcome) 보다는 과정(process)에 있어 효과(effect)를 볼 수 있다는 기대나 신념을 의미한다. 여러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목표 수립 및 시행, 과제 수행 및 장애에 대한 대처에 있어 매우 인내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의 성공적 결과를 기대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부정적 사고를 차단할 수 있어, 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고난이나 고통에 대한 내인성이 강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에 기여하는 요인들로서 첫째, 자기효능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근원은 성공 경험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통달 경험(mastery experience)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배우기 원했던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타인을 관찰하는 것은 대리적인 경험(vicarious experience)을 이용하는 것이라 했다. 셋째,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지만, 자신이 특정한 과제를 잘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자신을 격려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적절한 설득과 격려(persuasion and encouragement)를 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실제적인 정서적 흥분과 심리적 반응에 대한 긍정적 해석은 어려운 개인적 목표설정과 노력의 동원, 난관에 부딪혀도 끈기 있게 매달리는 지속성, 끈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0,11]. 국내의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결혼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사 등으로 많이 힘들고, 경력단절이라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취업기회의 확대도 매우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대처해나가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심리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2].

## 2.2 진로태도성숙과 30대 여성의 진로 및 경력

진로태도성숙(career maturity)에 대해 가장 먼저 심리학자인 Dysinger(1950)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는 직업준비과정을 환상, 탐색, 일반적 준비, 구체적 준비 및 정치의 4단계로 구분하면서 이 과정에서 진로태도의 성숙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13]. 진로태도성숙이라는 용어는 Super(1980)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진로성숙을 한 개인이 속한 연령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vocational task)을 위한 준비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로성숙을 진로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진로발달의 연속선상 중 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진로성숙이 일어나는 5차원을 생애발달단계와 과업에 대한 계획적 태도, 탐색에 대한 태도, 교육정보 및 직업 정보, 의사 결정 원리와 실제에 대한 지식, 현실성에서 개인이 어떤 위치에 처해있는지를 개인의 진로성숙 정도라고 나타내곤 했다[14]. 이후에 Crites(1961)는 Super의 정의를 비판하고 진로발달을 정도와 비율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진로성숙을 재정의 하였다. 정도로서의 진로성숙은 한 개인의 직업 행동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진로발달 단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의 직업행동 간의 유사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비율로서의 진로성숙은 개인의

직업행동을 자신과 동일한 연령대의 집단의 직업행동과의 비교를 통해 비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진로성숙이라고 하면 비율적인 진로성숙을 의미하므로, 진로성숙이란 교육적, 직업적 선택의 준비가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에 비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5]. 노성환(2003)은 성숙한 진로태도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 및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진로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한 합당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동일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의 수행 정도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16]. 결국 진로성숙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태도성숙의 개념은 개인의 자신의 진로와 경력에 대한 준비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대상인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들의 진로태도성숙도 다양한 방해 요인으로 인해 상당히 저하되어 있거나 훼손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3 REBT 진로 집단상담의 재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김희수, 박경애(2002) REBT를 개발한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30대 기혼여성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7]. 30대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로교육, 개인적 장단점,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신념, 논박 등으로 REBT의 주요 회기를 구성하였고, 30대 여성들이 많이 쓰는 용어와 흥미있는 주제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J시에 살고 있는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으로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본 연구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기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REBT 집단상담, 통제집단1(일반 부모교육), 통제집단2(직업상담사반)이고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 45명을 각 집단에 15명씩 배정하여 집단간 동

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Table 1> The contents of REBT Career Group Counseling

session	conten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rientation</li> <li>• introduce and greeting: member</li> <li>• education: irrational belief and self-efficacy</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ding and speaking about individual strength and weakness</li> <li>• finding individual irrational belief</li> <li>• ABCDEF practice</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cussing ABCDE Model</li> <li>• self-disclosure by chief complain</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f-disclosure and dispute</li> <li>• dispute and present irrational belief</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rational belief and difficulty in deciding career</li> <li>• rational decision making</li> <li>• job search practice and present</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ected job search and present</li> <li>• job searching by occupation ap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li> <li>• holland test and vocational interest</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fe style</li> <li>• vocational personality type</li> <li>• considering present condition</li> <li>• pilot decision making of career choice</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sent final decision making of career choice</li> <li>• making activity schedule and present</li> <li>• REBT reviw and finish</li> </ul>

### 3.2 측정도구

#### 3.1.1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 효능감의 개인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와 Rogers(1982)가 제작한 자기 효능감 척도(The Self-Efficacy Scale)를 홍혜영(1995)이 번안하고 김희수(2001)가 사용한 자기효능감 도구 검사를 사용하였다[6]. 이 도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과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과 관계 있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 등 2개 하위 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자기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김희수(2001)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 3.1.2 진로태도성숙 척도

진로태도성숙 척도는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제작하고 김희수(2001)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6]. 이 문항들 중 30대 기혼여성에게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는 5

문항에 대해 본 연구자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이 도구는 진로태도의 실현가능성(현실성),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과정(결정성), 진로에 대한 준비와 조사(준비성)의 3가지 하위 총 34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자기보고하게 되어있다. 김희수(2001)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0이었다.

###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PC+14.0을 이용해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집단 간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 반복측정(Repeated Measure)를 사용했다.

## 4. 연구결과

### 4.1 사전 동질성 검증

REBT 집단, 통제집단1(부모교육), 통제집단2(직업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전체)과 진로성숙도(전체)의 평균에 대한 사전비교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 집단의 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사전 동질성이 <Table 2>와 같이 검증되었다.

<Table 2> Pre Comparison of REBT and 2 Controls

test	Group	Control		F	
		REBT (n=15)	Control 1 (parental education) (n=15)		Control 2 (vocational counseling) (n=15)
self-efficacy (total)		3.48(.41)	3.52(.42)	3.31(.46)	1.01
career attitude maturity (total)		2.01(.32)	2.05(.20)	2.14(.30)	.81

### 4.2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 비교

REBT집단, 통제집단1(부모교육), 통제집단2(직업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F=4.36, p<.05), 사회효능감(F=2.74, p<.10)과 전체 효능감(F=4.90, p<.05)은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거나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Table

3>. 사후비교 결과 REBT 집단이 통제집단2(직업상담사)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전체)가 증가되었다.

<Table 3> Pre-Post Comparison of 3 Groups' Self-Efficacy

test \ Group	REBT (n=15)	Control 1 (parental education) (n=15)	Control 2 (vocational counseling) (n=15)	F
self-efficacy	3.96(.54)	3.77(.29)	3.48(.42)	4.36*
social-efficacy	3.54(.56)	3.57(.55)	3.49(.65)	2.74*
efficacy(total)	3.85(.50)	3.72(.32)	3.34(.47)	4.90*

+ p<.10 \* p<.05

### 4.3 진로태도성숙도의 사전-사후 비교

REBT집단, 통제집단1(부모교육), 통제집단2(직업상담사)의 진로태도성숙도의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준비성(F=4.13, p<.05), 결정성(F=4.32, p<.05)과 진로태도 성숙도(전체)(F=5.98, p<.05)는 측정시기와 집단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Table 4>. REBT 집단이 통제집단1(부모교육)과 통제집단2(직업상담사)에 비해 준비성, 결정성, 전체 진로태도 성숙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후비교에서 이런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볼 때, REBT 집단이 통제집단1과 통제집단2에 비해 진로태도 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 결정성, 진로태도성숙(전체) 되었다고 할 수 있다<Table 4>.

<Table 4> Pre-Post Comparison of 3 Groups' Career Maturity

test \ Group	REBT (n=15)	Control 1 (parental education) (n=15)	Control 2 (vocational counseling) (n=15)	F
reality	2.06(.30)	1.97(.25)	1.98(.23)	2.02
preparedness	2.46(.49)	2.20(.31)	2.15(.40)	4.13*
decision	2.15(.29)	1.95(.25)	2.03(.33)	4.32*
career maturity(total)	2.22(.22)	2.04(.19)	2.06(.27)	5.98**

\* p<.05 \*\* p<.01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력단절 중인 30대 여성에게 REBT 진로 집단상담을 구성 및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J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 45명을 상담집단(REBT 집단), 통제집단1(일반부모 교육 집단)과 통제집단2(직업상담사 교육집단) 등의 3집단에 15명씩 무선배정하고 사전-사후 비교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REBT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의 자기효능감, 사회효능감과 자기효능감(전체)이 증가되었다. 둘째, REBT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의 현실성, 준비성, 결정성, 진로성숙도(전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REBT 진로 집단 상담이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진로 및 직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하여 자기 효능감 및 진로 태도 성숙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김희수(2001), 백은정(2014)과 이기학, 이학주(2000) 등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REBT를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이 청소년뿐 아니라 30대 성인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 증진될 수 있다는 것도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결국 진로 집단상담이 진로와 경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과 대학생은 물론 30대 성인 여성에게도 상당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7,8].

최근 우리나라 30-40대 기혼여성이 노동력이나 사회 참여가 매우 기대되면서도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본 연구에서 상당히 지지되었다 [9]. 본 연구에 참가한 다수의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들이 모두 재취업과 경력 지속을 위한 의지와 동기를 많이 보고했고, 특히 REBT 진로 집단상담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우 상당히 열의를 갖고 집단상담에 임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가 집단상담의 지도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에 미치는 연구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맹검법(blind test)의 사용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REBT 진로 집단

상담은 단기간의 효과만을 가지고 검증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변화비교뿐 아니라, 추수검사(follow-up study)를 통한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에는 심리적 문제가 있는 내담자의 경우 진로상담을 할 때에 진로상담과 동시에 심리상담도 병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진로상담도 연구 및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REBT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초기와 중년기 등의 다양한 발달단계에서의 효과와 변화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사례수가 적어, 이 연구결과를 국내의 다른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기여는 매우 비중있고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라 생각된다. 특히 경력단절 30-40대 여성들의 구직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제도적 준비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18,19].

## REFERENCE

- [1] Ran-Young, Moon, "A Study on the Reemployment Process of the Career-interrupted Women Employing the Grounded Theory." Ph.D. dissertation, Dongshin University, 2013.
- [2] Work for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Korea(Republic of), 2015.
- [3] Ellis, A.,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Secaucus, NJ: Citadel, 1962.
- [4] Kwan-Young, Jung, "The Effect of REB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Reducing Stress and Improving School Adjustment of Academic High School Freshmen." Master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2014.
- [5] Young-Seok, Seo, "Effects of REB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stee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Boy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2006.
- [6] Hee-Sue, Kim, "The Effects of the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R.E.B.T on th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career maturity scale and decision making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Ph. 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2001.
- [7] Eun-Jung, Baek,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REBT on the Career Myths and Career Self-Efficac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4.
- [8] Ki-Hak, Lee, & Hak-Joo,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1, pp. 127-136, 2000.
- [9] Ae-Ran, Ha, "The Effect of the Determinants of Career Interruption of Korea Women's Desire for Returning to Work." Ph.D. dissertation, Injae University, 2010.
- [10] A. Bandur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1977.
- [11]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6.
- [12] Hyun-Sun, Lim, "Analysis on Determinant Factors of Korea Women's Career Transition in Perspective of HR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3.
- [13] W. S. Dysinger, "Matur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Occupations, Vol. 29, 198-201, 1950.
- [14] D. E. Super,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 Jossey-Bass, 1984.
- [15] J. O. Crites,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1981.
- [16] Sung Hwan, Noh,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Attitude Maturity toward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Youths Living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s." Master's thesis. Yonse University, 2003.
- [17] Il-Gu, Kim, "A Research Study on the Effects of

REBT Based Group Career Counseling o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2, pp. 339-358, 2002.

[18] Chun-Ok Jang, "A Study on Convergence Family Function and parameter validation fusion of youth protection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21-126, 2015.

[19] Jong-Min Lim, Ju-Dong Jang, Hyun-Soo Kim, Moo-Sik Lee, "Effects on the Mortality Patterns by Religious and Related Factors in Korean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213-223, 2015.

여 숙 현(Yeo, Suk Hyun)



- 1990년 2월 : 전주대학교 음악교육과(음악교육 학사)
- 2010년 8월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상담심리학 석사)
- 2014년 2월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상담심리학 박사 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마음편한상담심리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청소년 정서관리, 진로상담
- E-Mail : sukhyun92@hanmail.net

김 명 식(Kim, Myung Shig)



- 1987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사)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임상심리학 석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임상심리학 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 사회심리, 물질중독, 인터넷 중독
- E-Mail : klb2000@jj.ac.kr